



북한 문학사에 서술된 다산 문학의 의미와 통일문학사 서술에 있어 다산학의 역할

김 지 혜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목 차

머리말	
I. 북한 문학사에서 다산 문학의 위치, 왜 다산 문학인가?	2. 다산 문학의 진보적인 측면과 한계점 구분
II. 북한 문학사를 통해 본 다산 문학 서술 향방(向方)	3. 유연한 서술 태도와 예술적 형식의 강조
1. 형식주의의 배경과 사실주의적 시풍 (詩風)에 방점	III. 통일문학사 서술에 있어 다산학의 역할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문학사에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문학을 서술함에 있어 시기별로 어디에 방점을 찍고, 의미 해석과 평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산학(茶山學)을 가교(架橋)로 삼아 남한과 북한 학계의 소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총 5종의 북한 문학사를 시기별로 검토한 뒤, '선택과 배제'의 논리에 따라 서술 태도를 3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초기 북한 문학사에서는 다산 문학이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주의적 시풍(詩風)에 주목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인민적 성격에 방점을 찍었다. 1977년과 1982년 문학사에서는 다산 문학의 진보적인 측면과 함께 그의 계급적 한계성과 시대적 제약성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고, 한계점에 방점을 찍고 서술을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1988년과 1999년 문학사에서는 변증법적 논리에 따라 현실을 문학으로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는 사

북한 문학사에 서술된 다산 문학의 의미와 통일문학사 서술에 있어 다산학의 역할

실주의의 미학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서술 태도는 ‘정(正)’과 ‘반(反)’ 어느 한쪽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서술 시각을 유지하려는 모습으로서 유연한 서술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는 한편, 다산 문학의 사상뿐만 아니라 예술적 형식미에 대해서도 언급한다는 점에서 다른 문학과 차별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북한 문학사에서 다산 문학을 서술함에 있어 보이는 특징적인 면모와 그러한 특징적인 면모가 갖는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북한 문학사에서 다산의 문학을 평가할 때, 인민적 시각을 갖고 다산의 문학을 평가하려고 하였다. 두 번째, 주체사상 이후에 나온 북한 문학사에서는 문학사적 의의를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다산과 다산 작품의 한계도 지적하였다. 세 번째, 후반부 문학사로 오면서 문학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다. 위 세 가지 특징적 면모를 바탕으로 하여 다산학이 문학과 문학사 서술에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성취하는 이론적 준비를 맡아하기를 기대한다.

머리말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북한 문학사에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문학을 서술함에 있어 시기별로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으며, 의미 해석과 평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약용과 그에 대한 학문인 다산학(茶山學)¹⁾을 가교(架橋)로 삼아 남한과 북한 학계의 소통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통일문학사²⁾ 서술에 있어 남한과 북한의 이념 갈등, 해석 차이를 극복할 ‘소통의 철학’을 북한의 다산학 연구로부터 얻으려 하는 것이다. 이때 유념할 점은 본 연구의 목적이 남한의 연구와 북한의 연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산학 연구에 있어 북한의 연구를 거울처럼 비춰보며 남북한이 서로에게 배울 점을 공유하며, 통일시대를 예비한 문학사 서술에 있어 인식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최종 목표지점이라 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 학계에서는 정약용이 실학의 대표적 인물이자, 실학사상의 집대성자라는 점에 있어서 동일한 목소리를 내며 중요하게 연구하고 있다. 이처럼 정약용이 연구 지형도에서 우뚝 솟은 산으로 존재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한반도의 분단과 함께 좌우의 이념이 분화된 상

- 1) 본고에서는 ‘다산학(茶山學)’의 의미를 ‘다산의 학문(정약용의 사상)’이자 ‘다산에 관한 학문(정약용 연구)’로 사용하겠다. ‘다산학(茶山學)’에 대한 정의와 다산학이라는 명명이 갖는 애매성에 대한 지적은 유초하의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다. 유초하, 2000, ‘다산학의 남북 비교: 근대지향 개혁사상과 신중세적 관념론의 사이 또는 겹침’, 『민족문화연구』 제33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각주 1) 참고.
- 2) 남한과 북한 어느 한쪽에 편향되어 연구된 반쪽짜리 한국학, 그리고 편향되어 서술된 반쪽짜리 문학사가 아니라 온전한 한국학을 위해 남한과 북한의 문학사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문학사로 ‘한국문학사’, ‘민족문학사’, ‘통일문학사’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통일문학사’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태에서 정약용의 문학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북한 문학사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는 작품이 남한 문학사에서는 주목을 끌지 못하기도 하고, 남한 문학사가 중요하게 다루는 작품을 북한 문학사는 무시하거나 간략하게 기술³⁾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정약용과 그의 문학이 남북한 모두에게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중 있게 다뤄진다는 것은 그만큼 소통할 수 있는 면적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문학사가 정약용의 문학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어 서술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그 내용을 서술하는 태도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천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북한 문학사에서 다산 문학의 서술에 있어 보이는 특징적인 면모와 그것이 갖는 의의와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후 통일문학사 서술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다산학이 기여할 역할을 찾으려 한다.

I. 북한 문학사에서 다산 문학의 위치, 왜 다산 문학인가?

본 연구는 북한 문학사에서 정약용과 그의 문학이 시대에 따라 어디에 방점에 찍히며, 어떻게 해석·평가 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에서 이뤄진 다산 문학 연구를 통시적으로 조망하고 분석한다는 점에 있어서 메타 연구 또는 메타 분석이라 할 수 있겠다. 메타 분석(Meta-Analysis)은 수년간에 걸쳐 축적된 연구 논문들을 요약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특히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계속 누적되어 갈 때 이 논문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종합하는 모든 작업을 훌륭히 해낼 수 있는 방법이다.⁴⁾ 즉, 메타 분석은 어느 분야에서 전체 연구의 특성이나 연구 결과를 조망하고자 할 때, 혹은 시대별 동향을 파악하고자 할 때 유용한 방법이다. 북한 문학사에서 다산 문학이 시기별로 어떻게 서술되고 있으며, 어떤 부분에 방점이 찍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메타적인 시각을 요구한다.

이러한 방법은 다산학의 본질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 보이며, 메타 분석이라는 우회로를 통한 연구를 비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산과 관련된 연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우수하게 축적된 현 시점에서 통시적인 시각을 갖고 조망하는 방법론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다산의 실천적인 정신에 부합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산학의 현재적 의의 및 실용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밝히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온전한 한국학의 서술을 위해 그 동안 미진했던 북한 측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 남북한 문학사 서술에 있어 기준점을 마련하는 것은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남북한 연구의 가교로서 다산학의 역할에 주목하여 남북한 다산학을 비교하는 연

3) 김영민·설성경, 1998, 「통일문학사 서술을 위한 단계적인 방안 연구」, 『통일연구』 제2권 1호, 숭실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4) 메타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였다. 오성삼, 2002, 『메타분석의 이론과 실제』, 건국대학교출판부.

구는 현재까지 몇 차례 진행되었다. 우선 북한에서 이뤄진 정약용에 대한 연구 현황과 변화, 그리고 그 의미를 고찰한 논문으로는 1989년 김영수의 「북한의 다산연구시각」⁵⁾과 1994년 김용규의 「북한의 정다산 연구에 대한 고찰」⁶⁾ 두 편이 있다. 이후, 2000년이라는 전환기를 맞아 ‘남북한 한국학연구의 접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심포지움에서 유초하가 「남북 다산학의 비교」라는 글을 발표한 뒤, 「다산학의 남북비교: 근대지향 개혁사상과 신중세적 관념론의 사이 또는 겹침」⁷⁾과 「북한 다산학의 중점이동 과정과 최종지침의 핵심 -봉건체제 혁파지향에서 자본주의적 요구의 반영으로-」⁸⁾라는 두 편의 논문을 썼다.

1989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사이에 북한에서 이뤄진 다산학을 연구하는 데서 남북한 다산학을 비교하는 장을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갔지만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에서 연구 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약용에 대한 북한 학계의 연구 성과, 또는 남북한 연구 성과를 총론적인 성격에서 추상적으로 정리하고 비교하는 데 그쳤다. 그것도 철학과 역사 분야에서 정약용의 사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범박하게 살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마저도 2001년 유초하의 연구 논문을 끝으로 단절되었다. 이러한 단절은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운 데서 기인(起因)하기도 하겠지만, 연구자들의 질문이 예각화 되지 못하는 데서도 기인한다.

질문이 무뎠던 상태에서 더 이상 예각화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 답을 찾는 과정은 다소 다를지라도 질문을 통해 얻어지는 답, 또는 결과는 유사할 수밖에 없다. 답보(踏步) 상태인 연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질문을 바꾸거나 질문을 좀 더 예각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에서 이뤄진 다산학 연구를 비교하는 선행연구의 연장선상 위에서 보다 예각화 된 질문을 던지며, 국문학계에서 다산학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전망할 것이다. 북한 문학사 서술에 있어 다산의 문학이 어떤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지 살피는 것을 기점(起點)으로 하여, 남한과 북한 국문학계의 소통을 위한 역할을 다산학에서 찾는 본 연구는 문학사에 있어 다산학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현재적 의미’를 찾는 데 필요하다.

우선 다산 정약용이 좌우 이념을 넘어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한 역사는 오래되었다. 일찍이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 1893~1950)가 “다산 연구는 곧 조선사 연구요, 조선 근대 사상 연구”라고 정리했듯, 다산의 사상은 1930년대 이념의 갈등을 넘어 민족주의자·사회주의자·자유주의자 등의 모든 개혁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1930년대 안재홍, 문일평, 정인보 등에 의해 이뤄진 조선학 운동의 중심에도 정약용이 있었다.⁹⁾ 이들은 다산 서거 99주년을 기념으로 다산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를 간행하면서 조선학을 제창한 것인데, 이후 이것이 다산 별

5) 김영수, 1989, '북한의 다산연구시각', 『동아연구』 제17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6) 김용규, 1994, 「북한의 정다산 연구에 대한 고찰」,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 유초하, 2000, 앞의 논문.

8) 유초하, 2001, 「북한 다산학의 중점이동 과정과 최종지침의 핵심 - 봉건체제 혁파지향에서 자본주의적 요구의 반영으로-」, 『동양학』 제31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9) 이와 관련해서는 윤선자, 2004, '1930년대의 국학운동과 다산 인식', 『한국사상사학』 제23집, 한국사상사학회.에 자세하게 논의되어 있다.

세 100년 행사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게 되었다. 1930년대 다산학을 중심으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화합하고 만나는 장이 펼쳐진 것이다. 남북 분단 이전에 다산을 중심으로 좌우 이념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반면에 남한과 북한 분단 이후, 다산 정약용과 그에 대한 학문인 다산학이 수행했던 역할이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문학사에 있어 다산 정약용의 의미를 해석하는 남한과 북한 연구를 한 자리에 모은 후, 해석의 다양함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다음으로 ‘다산의 세계화’¹⁰⁾라는 현재적 과제는 남북한 통일을 예비한 통일문학사 기술에 있어 다산학의 중요한 역할과 함께 갈마들어가며 문학 영역에 있어 보다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하겠다. ‘다산학의 세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 문학사에서 정약용이 시기별로 어떤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지 연구하고, 통일문학사 서술에 있어 다산학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는 것은 다산학의 세계화에도 구심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온전한 의미의 한국학은 남한이나 북한 어느 한쪽에 편향된 연구가 아니라, 남한과 북한 연구를 모두 아우를 때 서야 가능하다. 문학사 서술에 있어 다산 문학 서술 연구는 남한과 북한의 연구를 모두고, 소통할 수 있는 현재적, 그리고 미래적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어, 우리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¹¹⁾

II. 북한 문학사를 통해 본 다산 문학 서술 향방(向方)

남한에서만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다산의 문학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다산 문학을 실학과 문학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은 모든 문학사 서술에 있어 공통항으로 꼽을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북한 문학사에서 시기별로 다산의 문학에 대해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하겠다. 북한에서 출간된 문학사 중에서 다산 정약용의 서술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남한에서 확인 가능한 연구 논저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문학연구실편, 1959(화다, 1989), 『조선문

10) 2012년 ‘세계유산: 다산 프로젝트’라는 주제를 갖고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가 대규모로 개최되었다. 또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교수인 도널드 베이커는 다산 정약용을 세계화 시대에 주목해야 할 인물이라며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다산 정약용은 세계화 시대에 주목해야 할 인물입니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는 서양의 개인주의와 동양 유교문화의 집단주의가 조화를 이루길 요구하지요. 유교와 서학의 영향을 모두 받은 다산은 개인이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제시합니다.” <동아일보>, 2013. 06. 28.

다산의 세계화를 주장하는 다양한 목소리와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풍경은 다음 책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다산학술문화재단, 2013,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사업백서』, 도서출판 사암.

11) 정일균, 2014, '1950, 60년대 ‘근대화’와 다산 호출’, 나종석 외 지음, 『유학이 오늘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가』, 혜안.

북한 문학사에 서술된 다산 문학의 의미와 통일문학사 서술에 있어 다산학의 역할

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②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1977(『조선문학통사』 1, 이회문화사, 1996), 『조선문학사』 고대·중세 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③ 김일성종합대학 편(임현영 해설), 1982, 『조선문학사』 I, 도서출판 천지.
④ 정홍교·박종원, 1986(도서출판 진달래, 1988), 『조선문학개관』, 사회과학출판사.
⑤ 김하명, 1999, 『조선문학사』 6,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남한 문학사는 개인이 서술한 경우가 많으나, 북한 문학사의 경우 개인의 문학사관이라기 보다는 북한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서술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남한과 북한은 문학사 서술의 주체에 있어서부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위의 문학사를 통해서 주체가 부여받은 시대적 소명과 그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 다산 정약용의 문학 중 어느 부분에 주목하고 어떻게 서술하는지는 살펴보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의 문학사에 있어 다산 문학이 갖는 특징과 통일문학사 서술을 위한 실마리를 다산학에서 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이해로서의 북한문학사’¹²⁾를 정리하여 소개하겠다. 이를 위해 북한 문학사에서 시기에 따라 다산의 문학 중 어느 지점이 명멸(明滅)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형식주의의 배경과 사실주의적 시풍(詩風)에 방점

1959년 북한에서 서술된 ①『조선문학통사』(상)은 “맑스-레닌주의적 방법으로 간명하게 서술하여” 내놓은 북한 공식 문학사로서 다산 정약용 문학의 자리매김과 평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우선, 정약용 문학은 ‘제9장 1. 시가 부분’에서 일부로 존재하며 절반 이상을 할애하여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정약용 문학의 미학은 ‘사실주의적 시풍(詩風)’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위 문학사에서는 다산이 15살 때 배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지은 <춘일한양행(春日漢陽行)>¹³⁾의 시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사실주의적 시풍’의 단초를 마련하였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춘일한양행>은 인민의 현실과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였다기보다는 봄 날 배를 타고 한양으로 가는 길 자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한시이다. ‘사실주의 시풍’에서 ‘사실주의’의 범위를 ‘인간사(人間事)’에서 ‘자연사(自然事)’로 넓혀서 보고 있으며, ‘탁월한 사실주의적 시인’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어렸을 적에 창작한 시에서부터 사실주의의 뿌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

12) 김재용, 2001, ‘북한문학사 검토와 서술방향’, 『한국문학사 어떻게 쓸 것인가』, 한길사, 96쪽.

13) 아침 햇발에 먼산은 개여 있고/ 봄 바람에 강물은 출렁거린다/ 기슭을 굽이도니 키는 굴르고/ 물결이 빠르니 노소리도 아니난다// 잔디밭엔 옥색이 떠오르고/ 버들가지에는 누른 빛이 물들었다/ 보아하니 서울이 가까웠는가/ 삼각산이 우뚝 다가서누나. (旭日山晴遠/ 春風水動搖/ 岸廻初轉柁/ 湍駛不鳴撓// 淺碧浮莎葉/ 微黃着柳條/ 漸看京闕近/ 三角鬱巖峯)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문학연구실편, 1959(화다, 1989),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413쪽.

이후 다산의 사실주의 시가는 자연사를 읊는 사실주의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인민의 처참한 삶을 읊는 인민적 성격의 사실주의로 방점이 옮겨간다. 다산의 사실주의 시가가 추구하는 인민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다산이 28세 때 과거에 급제한 후 벼슬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인민의 입장에서 지방 관료의 위선을 폭로하는 시를 쓰기 시작한 것과 맞물린다. 특히, <애절양(哀絶陽)>이라는 시가 당시의 현실을 가장 예리하게 반영하고 또 비판하였다고 서술한다.

정다산도 처음에는 과시(科詩)를 공부하였던 것이나, 그는 과시를 공부하는 자들이 내용을 떠나서 거짓 외형만을 꾸미는 것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자기 조국의 역사, 지리, 풍속, 언어, 경제, 정치 등에 무관심한 태도를 배격하여 그의 애국적이며 사실주의적 문학의 길을 찾았다. 그는 일찍이 그의 『오학론(五學論)』 가운데서 문장론에 관하여 “자기의 내부에 쌓이기를 마치 땅이 만물을 싣고 바다가 만상을 포함하며 구름이 울결하고 우레가 서리듯하여 마침내 감출 수 없는 것이 있는 다음에 외부 사물이 접촉하고 감수하고 감촉하고 흔들며 격동하면 외부에 발표되는 것이 호탕 왕양하고 찬란 휘황하여 가까이하는 사람을 느끼게 하며 멀리는 천리를 움직이고 귀신에 통할 수 있나니 이것이 문장이다. 문장은 외부에서 구할 수 없다. 문장이 내부로부터 발표되지 않고 모두 외부에서 도습하여 스스로 잘하는 체 하면 이것이 어찌 본래 이르는바 문장이겠는가?”라고 하였는바 여기에서 문장이란 곧 시가로 바꿔 놓아도 무방하다고 본다.¹⁴⁾

이러한 사실주의적 성격은 문장(시가)을 바라보는 다산의 근본적인 시각에서부터 비롯된다. 위 문학사에서는 정약용의 『오학론(五學論)』 가운데서 문장론에 관한 언급을 인용하며, 정약용이 형식주의를 배격한 사실주의 문학의 깊이를 강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외부에서 도습(蹈襲)하여 ‘거짓 외형’을 꾸미는 데 힘쓴 문장은 다른 사람을 감동(感動)시키는 힘을 가질 수 없으며, 내용의 진실성을 갖은 글은 외형으로 감출 수 없으며, 가까이하는 사람을 감동시키며 멀리는 천리를 움직이고 귀신에 통(通)할 수 있다고 한다. 이때, ‘거짓 외형’이라는 것은 시 창작에 있어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것을 덮어 놓고 모방하는 사대주의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리고 천리를 움직이고 귀신에 통한다는 것은 문장(시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 힘을 가졌음을 말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다산은 시가 창작에 있어서 옛 수법, 방식 따위를 그대로 본받아 좇는 형식주의에 매몰되어 사회상과 인간의 진실성을 반영하지 않는 시가를 비판하며, 내용의 진실성을 중요시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초기 북한 문학사에서는 다산 문학의 간결한 형식과 진실한 내용에 방점을 찍고 있으며, 진실한 내용 중에서도 풍부한 ‘인민적 성격’에 힘주어 서술하고 있다.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문학연구실편, 1959(화다, 1989), 위의 책, 416쪽.

2. 다산 문학의 진보적인 측면과 한계점 구분

1959년 북한에서 서술된 ①『조선문학통사』(상)에서는 정약용의 문학이 갖고 있는 인민성이 선택되어 강조되고 있다. 반면 1977년에 서술된 ②『조선문학통사』 1에서는 ①『조선문학통사』(상)에서 배제되었던 다산 문학의 한계점과 제한성이 부각되어 서술되고 있다. 이는 다산이 갖고 있는 계급적 한계와 연결되며, 양반의 위치에 있었던 다산은 태생적으로 한계와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실학자들이 문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말하면서 강조한 ‘뜻’의 내용도 그들의 양반 계급적 입장과 밀접히 연관된 것이었다. 정약용은 자기가 두보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두보의 시에 ‘충신, 효자, 열부, 친우들이 서로 진심으로 걱정하는 뜻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여기서 정약용이 염두에 둔 ‘뜻’이란 다름 아닌 삼강오륜의 유교사상을 기본으로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⁵⁾

정약용은 철학적 견해에서 진보적인 측면들도 있었으나 홍대용이나 박지원 등 다른 실학자들에 비하면 보수적인 측면도 있었다. 그는 주자학에 대하여 비판하면서도 유교 경전을 근거로 삼았던 데서 유교 관념론에 머물렀다. 그리하여 세계의 시원을 물질적 기로 인정하면서도 정신적인 우위성을 인정하고 이른바 비현실적인 ‘상제’의 존지를 인정함으로써 결국 존재와 의식에 관한 문제에서나 인식론에서 관념론에 떨어지고 말았다. 봉건 유학자로서의 그의 양반 계급적 입장은 ‘삼강오륜’, ‘인의예지’의 봉건적 도덕 규범을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공간으로 본 데서도 나타났다.¹⁶⁾

그러나 정약용의 문학에 대한 견해는 봉건 사상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문학에 대한 그의 견해에서 근본적인 제한성은 문학 수업을 하는 사람들은 유교 경전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미학적 견해가 봉건 유교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다산은 또한 봉건 유교 도덕의 관점에서 소설 문학의 역할을 무시하였다. 그는 도덕 윤리적 문제에서는 많은 경우에 봉건 유교 도덕의 교리를 내세웠고, 특히 사람의 성품과 가치를 평가하는 데 적지 않게 유교 도덕의 규범을 기준으로 하였다.¹⁷⁾

1977년에 서술된 ②『조선문학통사』 1과 이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1982년에 서술된 ③『조선문학사』 I에서는 다산의 문학에 대한 견해는 봉건사상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1956년 문학사 ①에서는 배제되었던 제한성이 선택되어 부각되고 있다. 다산의 문학에 대한 견해가 갖는 제한성은 문학을 하는 사람이 유교 경전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에 있다고 비판한다. 즉, 다산이 주자학을 비판하

15)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1977(『조선문학통사』 1, 이회문화사, 1996), 『조선문학사』 고대·중세 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539쪽.

16)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1977(『조선문학통사』 1, 이회문화사, 1996), 위의 책, 558쪽.

17) 김일성종합대학 편(임현영 해설), 1982, 『조선문학사』 I, 도서출판 천지, 373쪽.

면서도 유교경전을 근거로 삼음으로써 유교적 관념론에 머물고 만 한계를 지닌다고 서술하고 있다.¹⁸⁾

그러나 시 창작에 있어서는 모순된 현실을 반영하고, 비판하며 풍자 수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산의 풍자시들은 풍자적 수법과 비유법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쓰면서 풍자 대상인 반동적 양반 관료배들의 죄행을 비교적 힘 있게 들추어 보이고 있으며, 시인 자신의 주정 토로를 잘 살려 시의 호소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서술한다.¹⁹⁾ 이를 통해 현실 비판과 풍자에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시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정과 함께 현실을 개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고 비판하는 것으로 보아, 1977년대와 1882년에 쓰인 북한 문학사²⁰⁾의 근간(根幹)에는 다산의 문학이 갖고 있는 계급적 한계와 약점이 부각되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산 작품의 진보적인 측면과 함께 그 제한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적성촌의 오막살이>-인용자)²¹⁾ 서정시에서는 서까래만 앙상하게 남은 오막살이의 고통과 불행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봉건 통치배들의 군포·환자와 결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농민들의 기막힌 생활 처지를 왕의 ‘선정’에 의해 풀어야 한다는 ‘왕도’ 사상을 내세운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²²⁾

「 굽주리는 백성의 노래」는 현실에 대한 시적 일반화의 폭과 심각성, 강한 비판의 기백 등으로 하여 봉건 시기 사실주의 시가 문학의 대표적 작품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시인은 봉건 통치제도 자체를 그 밑뿌리로부터 뒤집어엎지 않고서는 봉건사회가 빚어내는 모순과 불합리를 근본적

18) “정약용은 자기 아들에게 글을 잘 쓰자면 먼저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가 말한 ‘임금’이란 곧 ‘어진 정치’를 베풀고 ‘덕으로 다스리는’ 봉건군주이며 ‘나라’란 그러한 군주가 통치하는 봉건국가이다. 따라서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결국 봉건국가에 충성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약용은 이러한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작가가 자기의 ‘뜻’을 바로잡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유교경전들인 사서오경을 읽어 글을 지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여 이른바 ‘효성과 우애의 행실로써 성품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실학자들의 미학 견해는 당시로서는 일정한 진보성을 가졌으나 그들 자신의 계급적 및 시대적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본질적 약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1977(『조선문학통사』 1, 이회문화사, 1996), 앞의 책, 539쪽. (강조 인용자)

19) 김일성종합대학 편(임현영 해설), 1982, 앞의 책, 375~376쪽.

20) 주체사상의 확립 이후인 이 시기에 쓰인 문학사는 주체사상의 합법칙성과 합목적성에 부합하게 쓰였다. 이를 두고, 주체사상이 문학을 ‘선험(先驗)적으로 재단’을 한다고 비판하는 시각이 다수이다.

21) 시냇가에 찌그러진 집 게딱지 같은데/ 셋바람에 이영 걷혀 서까래만 앙상하네// 목은 재에 눈이 덮여 부엌은 차고/ 허물어진 벽 틈으로는 별빛이 비쳐 드네// 방안에 있다는 것 너무도 쓸쓸구나/ 모조리 다 팔아도 칠판전도 안차겠네// 개꼬리 조이삭 서너이삭/ 빨간 고추케미 단 한 케미// 깨어진 향아리는 형겅으로 발랐으며/ 찌그러진 시렁태는 새끼줄로 엮맷구나// 큰아이 다섯 살에 기병으로 등록되고/ 셋에 난 작은 애도 군적에 적혔다네// 두 아이 군포세로 돈 닷량 물고나니/ 죽기라도 원할판에 옷이 다 무엇이랴// 어허! 이런 집들이 온 천하에 가득하다/ 구중 궁궐 깊이 앉어 어찌 다 살겠으리// 한나라 옛 제도에 직지사자 파견하여/ 이천석 관리놈도 즉결처분하였거든// 학정의 갖은 폐단 뿌리부터 안뽑으면/ 공수, 황패 다시 온들 구원하기 어려우리// 두어라 정협(正協)의 류민도인양/ 이 시 한편 그려내어 입에게나 드리고저.

22) 김일성종합대학 편(임현영 해설), 1982, 앞의 책, 374쪽.

북한 문학사에 서술된 다산 문학의 의미와 통일문학사 서술에 있어 다산학의 역할

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는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작품에서 조정의 관리들을 백성들의 ‘부모’에 비기고 지방의 관료들을 백성들의 ‘형’에 비기면서 부모나 형과 같은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구제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권고하고 걱정하는데 그쳤으며 통치배들이 경제를 잘 다스리면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듯이 썼다.²³⁾

다산의 작품은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미학 견해도 제기하며, 사실주의적으로 현실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 의식에 비해, 현실을 개혁하는 방법은 과거 봉건 유교 사상으로 회귀(回歸)하였기에 관념론적 성격을 면치 못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북한의 문학사에서 다산의 한계를 주로 그의 유교 경전에 대한 경사를 가지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것은 매우 피상적이고 단순논리에 입각한 재단이라고 생각된다.²⁴⁾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유교 경전을 해석하는데 있어 다산이 주자학적 해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다산만의 새로운 독법(讀法)을 통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학(大學)』이라는 유교 경전을 해석할 때도, 주자학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고증학적인 방법론에 따라 실천적인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건대, 시가에서 유교 경전의 덕목을 강조한 것도 보수적인 주자학적 시각에서 강조하였다기보다는 탈주자학적 시각에서 강조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²⁵⁾

3. 유연한 서술 태도와 예술적 형식의 강조

1986년에 쓰인 『조선문학개관』은 ‘제7장 18~19세기 중엽의 문학’ 영역에서 ‘4. 실학과 문학’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그 중 한 부분에 ‘실학과 시문학과 정약용의 시가’라고 하여 정약용의 문학을 서술하고 있다. 기존 문학사에서 다산 문학에 대해 평가한 ‘진보적인 의의’와 함께 ‘봉건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못한 결함과 제한성’을 모두 언급하고 있다.

실학사상가들은 봉건적 관계가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회역사적 조건과 자신들의 양반계급적 제한성으로 하여 봉건유교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봉건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못한 결함과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학사상은 우리나라 역사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을 반영하여 나온 새로운 사상으로서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의의를 가졌다.²⁶⁾

23)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1977(『조선문학통사』 1, 이희문화사, 1996), 앞의 책, 562쪽.

24) 민족문학사연구소 지음, 1991,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 창작과비평사, 258쪽.

25) “다산의 진면목에 대한 세심한 배려 없이 경직된 이념에 의해 작가와 작품을 재단하는 것은 북한 문학사의 실득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고, 북한 문학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다.” 민족문학사연구소 지음, 1991, 위의 책, 258쪽.

26) 정홍교·박종원, 1986(도서출판 진달래, 1988), 『조선문학개관』, 사회과학출판사, 259쪽.

한쪽에 치우친 절뚝발이 평가가 아니라 나름의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산의 시작품들에서 표현되고 있는 개혁사상은 아직 봉건의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지만 새로운 시대적 지향을 담지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 태도는 사실주의의 미학에 방점을 찍고, 강화된 서술을 보이는 모습은 초기 1959년에 쓰인 북한 문학사로 복귀하는 듯 한 인상을 준다. 하지만 경직된 사실주의가 아니라 한계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유연한 서술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고 계급적 한계점과 시대적 제약성에 경도되어 있지도 않다.

이러한 서술 태도는 <적성촌의 오막살이>라는 시를 둘러싼 ‘선택과 배제’의 논리가 시기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데서 잘 드러난다. 1982년에 쓰인 『조선문학사』 I에서는 다산의 문학이 가진 한계점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서술되어 있다. 하지만 1986년에 쓰인 『조선문학개관』에서는 작품에 그려진 적성촌의 오막살이의 초라한 외형과 집안의 쓸쓸한 형편은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구차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어서 이 시는 서정적 주인공의 주정보다도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생동하게 보여주면서 불합리로 뒤엎기고 모순에 찬 당대의 사회현실을 폭로하고 가난한 농민들에 대한 동정을 표시한 것으로 특징적이라고 평가한다.²⁷⁾

그러는 한편 사실주의적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즉 시가의 형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서술하고 있다.

정약용은 현실비판의 기백이 강한 작품들과 함께 세태적인 생활소재를 통하여 농민들의 생활감을 민요적 정서로 노래한 시들도 많이 썼다.²⁸⁾

정약용은 또한 정론적 성격의 시들과 서정시에 서사적 요소를 적절히 도입하여 현실을 생동하고 폭넓게 재현한 시들 그리고 《송충이》, 《모기를 미워한다》, 《오징어》, 《술피며》를 비롯하여 의인화의 수법을 적용한 풍자시들, 《장기농가》, 《탐진촌요》, 《탐진어가》와 같은 민요풍의 노래 등 다양한 형식의 시가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시가의 예술적 형식을 새롭게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하였다.²⁹⁾

이 문학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정약용 문학의 사실주의적 미학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27) 정홍교·박종원, 1986(도서출판 진달래, 1988), 위의 책, 272쪽. 사실주의적 특징을 강조하는 한편 다산이 가진 시대적 한계에 대해서도 동등한 거리를 갖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시인은 봉건통치제도 자체를 뒤집어 없지 않고서는 당대의 악착같은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봉건유교사상에 기초하여 현실을 대하였던 그는 조정의 관리들을 백성들의 부모에 비기고 지방의 관료들을 백성들의 형에 비기면서 부모나 형과 같은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구제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걱정하는데 그쳤으며 통치배들이 경제를 잘 다스리면 민중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듯이 썼다.” 정홍교·박종원, 1986(도서출판 진달래, 1988), 위의 책, 273쪽.

28) 정홍교·박종원, 1986(도서출판 진달래, 1988), 위의 책, 274쪽.

29) 정홍교·박종원, 1986(도서출판 진달래, 1988), 위의 책, 275쪽.

북한 문학사에 서술된 다산 문학의 의미와 통일문학사 서술에 있어 다산학의 역할

한계를 지적하는 유연성을 보였으며, 나아가 형식적인 미에 대해서도 강조함으로써 ‘예술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연한 서술 시각과 함께 예술적 형식을 강조하는 서술 태도는 이후 1999년에 발간된 김하명의 『조선문학사』에서도 견지된다.

사실 사회과학원에서 간행한 『조선문학사』(고전문학에 해당하는 권인 1~6권에 한정)의 변화를 한 마디로 요약해 말한다면 ‘서술 시각의 유연화’라고 할 수 있다. 보수적이며 반동적인 문학을 문학사에 포함시킨 것은 물론 인민적이며 진보적인 문학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던 제한성 혹은 한계에 대한 지적도 완화 혹은 삭제되었기 때문이다.³⁰⁾

1999년에 쓰인 김하명의 『조선문학사』 6권에서는 실학과 문학의 한 장으로 다산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다산 스스로가 한 장으로 독립되어 있다. 북한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에서 출간된 『조선문학사』는 총 15권으로 분량이 방대하며, 17~19세기에 해당하는 각 시기별로 책의 권수를 달리하였다. 19세기 문학을 다룬 제6권의 ‘제6장 다산 정약용의 창작과 사실주의시문학발전의 새경지’에서 다산의 시문학을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다. 분량이 방대한 만큼 각 시기를 대표하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설명이 기존 북한 문학사보다 자세한 편이다.³¹⁾ 제1절 생애와 창작활동을 다산의 작가론에 해당하며, 제2절 다산의 세계관과 미학적 견해에서는 다산의 사실주의 미학을 유물론적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산에 대해서 실학의 내용을 풍부화·체계화시켜 실학을 집대성한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학자의 한사람으로 소개하면서 그의 세계관과 미학적 견해의 바탕에는 문학을 객관적 사물현상의 반영으로 보는 유물론적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그의 시 창작을 수확시기, 유배 전, 유배 이후의 세 시기로 나누어 상술하고 있다.³²⁾

김하명은 사실주의 미학원리에 입각하여 문학사를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실주의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현실의 모순이나 인민들의 실제 생활을 그대로 묘사한 작품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³³⁾

«시란 뜻을 이야기한 것이다. 뜻이 본디 비루하다면 억지로 고상한 말을 꾸미려고해도 그 리치를 이루지 못하며 사상이 본디 험애하다면 억지로 활달한 소리를 하려고 해도 사정에 맞지 않는다. 때문에 시쓰기를 배우려고 하면서 그 뜻을 수양하지 않는다면 거름 더미속에서 맑은 샘물을 따라내며 썩은 풀더미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찾아내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생토록 애를 써도 이룩하지 못할 것이다.» ... 다산이 뜻이라고 하는 말은 현대의 문학용어로 바꾼다면 곧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는 시인의 뜻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우선 사상을 풍부히 하고 고상하게 해야 하며 그것을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⁴⁾

30) 김현양, 2010, '북한의 '우리문학사' 서술의 향방 -근대문학 이전의 문학사 서술을 대상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42호,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64쪽.

31) 김형태, 2012, '북한 문학사의 조선 후기 서술 향방과 변화', 『민족문학사연구』 제49호,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379쪽.

32) 김형태, 2012, 위의 논문, 397쪽.

33) 김형태, 2012, 위의 논문, 411쪽.

34) 김하명, 1999, 『조선문학사』 6,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29쪽.

다산은 사실주의 문학예술에 있어서 그 사상성과 함께 대상의 생동한 묘사에 대해서도 큰 의의를 부여하였고 묘사의 진실성, 생동한 사실적 필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묘사의 진정성, 이것이 없이는 바로 예술 그 자체도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³⁵⁾

다산이 시와 산문의 창작실천에서 사상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많은 것을 새로 개척하고 발견하면서 우리나라 문학발전에 기여하게 된 것은 그의 이와 같은 진보적인 미학사상에 답박하고 있다. 그러나 다산의 미학적 견해에는 보수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그는 한편으로 시대의 발전과 함께 문체가 필연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소설문학의 교양적 의의는 의문시하였다.³⁶⁾

변증법적 논리에 따라 현실을 시로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주의의 미학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진보적인 측면과 더불어 보수적인 측면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균형 잡힌 서술 시각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유연한 서술 태도라 할 수 있다.

Ⅲ. 통일문학사 서술에 있어 다산학(茶山學)의 역할

북한 문학사에서 다산의 문학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총 5종의 북한 문학사를 시기별로 검토한 뒤, ‘선택과 배제’의 논리에 따라 서술 태도를 3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본 장에서는 북한 문학사에서 다산 문학을 서술함에 있어 보이는 특징적인 면모와 그러한 특징적인 면모가 갖는 의의, 그리고 한계점 등에 대해서 논의한 뒤, 통일문학사 서술에 있어 다산학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북한 문학사에서 다산의 문학을 평가할 때, 인민적 시각을 갖고 다산의 문학을 평가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인민들의 삶과 고통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려내는지, 그 필진성에 대해 주목하였다. 문학이 현실 반영에 있어 사실적이어야 함은 물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봉건적인 관념에 환원되는 것이 아닌 인민들의 실제적 삶과 연동된 실천적 힘을 고수하였다. 때문에 다산이 양반 계급의 시선에서 대안책을 제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다.³⁷⁾

35) 김하명, 1999, 위의 책, 131쪽.

36) 김하명, 1999, 위의 책, 132쪽.

37) “정약용은 폐단이 많은 정치를 고쳐야만 기울어져가는 봉건국가의 운명을 추세할 수 있고, ‘낡은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지향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데로부터 자기의 작품들에서 봉건 통치배, 지주, 토호들의 인민들에 대한 지나친 착취와 압박, 인민들의 원성을 자아내는 낡은 법질서들에 비판을 가하고 그것들을 ‘합리적으로’ 개혁하자는 사상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그가 봉건사회를 부정하고 그 어떤 인민을 위한 나라를 구상하였거나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진보적 사상가이며 시인이었던 정약용도 봉건적 울타리를 넘어서서 근로 인민의 근본 요구를 대변해 나설 수는 없었다.” 사회

두 번째, 주체사상 이후에 나온 북한 문학사에서는 문학사적 의의를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다산과 다산 작품의 한계도 지적하고 있다. 물론 한계로 지적된 부분은 다산이 본래 견지했던 내적 성찰에 대해 간과하여 생긴 오류로 읽을 가능성도 크며, 지적되는 문제점 또한 많다. 그러나 한계에 대해 지적한 내용이 옳으나 그르냐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문학사 서술에 있어 작가와 작품에 대한 공과(功過)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한다(면38), 이러한 서술 태도는 문학사 서술에 있어 기본 전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후반부 문학사로 오면서 민요적 형식에 주목하는 태도를 통해 문학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다. 최근 문학사로 올수록 다산 문학의 예술적 형식미, 형식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강조하는 서술 태도를 점차 보이고 있다. 문학이 형식과 내용이 결합된 언어 예술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내용의 사실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형식미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서술 태도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내용 차원에 국한하여 소재와 주제 위주의 서술에 치중해 있던 문학사는 최근 문학사로 오면서 형식적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민요풍의 노래 등 다양한 형식의 시가 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시가의 예술적 형식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 하였다는 평가는 눈여겨 볼 만하다.³⁹⁾

북한 문학사에서 다산의 문학을 서술하는 위 세 가지 특징적 면모를 바탕으로 하여 조동일이 언급한 “문학과 문학사 서술에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성취하는 이론적 준비”를 다산학이 맡아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한국학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의 연구까지 아우를 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며, 좌우의 이념이라는 외적인 요소들을 걷어낸 후, 남한과 북한이 서로에게 배울 점을 찾는 작업을 통해서 온전한 한국학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겠다. 이를 통해 다산학이 미래의 통일 한반도, 통일된 학문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일에 중대한 임무를 맡을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문학사에 있어 통합된 통일문학사를 서술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산학이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다. 문예학적인 입장에서 통일문학사 서술에 있어 필요한 기준점 또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비록 남북한 고전문학사가 서술 주체에서부터 서술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르지만, 문학사에서 다산 문학의 서술 사례를 통해 통일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문학사 서술 방향이나 통합의 가능성에 대해 전망해 보는 것이다.

문예학적인 입장에서는 남북한 문학사에서 다산의 문학이 서술되는 방식을 서로 조응(照應)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범박하게나마 통일문학사 서술을 위한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다. 물론 문학사의 원론적인 측면인 서술내용, 서술방법과 관점 종류 등에 대해 실제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다산 문학에 대한 서술을 통해

과학원 문학연구소, 1977(『조선문학통사』 1, 이회문화사, 1996), 앞의 책, 564쪽.

38) 민족문학사연구소 지음, 1991, 앞의 책, 261쪽.

39) 정홍교·박종원, 1986(도서출판 진달래, 1988), 앞의 책, 275쪽.

추출해 낼 수 있는 요소를 3가지 정도 들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문학사에 있어 주체의 문제를 고민하게 한다. 문학사 서술의 주체, 문학의 주체 등 엇갈리는 주체를 어떻게 고정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작가와 작가의 작품이 갖고 있는 공과(功過)를 함께 서술함으로써 문학사의 비판적 역할을 각성하게 한다. 작가들의 역사적 공과를 올바르게 밝히는 일이 문학사의 임무임을 깨닫게 한다. 작가와 작품의 한계점에 대해 지적하고 생각해보는 것은 작품을 새로운 차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세 번째, 형식과 내용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언어 예술인 문학을 소재와 주제 차원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형식미를 이야기하는 담론이 이뤄져야 하겠다.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북한 문학사에서 다산의 문학을 서술함에 있어 시기별로 어디에 방점을 찍고, 의미 해석과 평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총 5종의 북한 문학사들 시기별로 검토한 뒤, '선택과 배제'의 논리에 따라 서술 태도를 3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북한 문학사에서 다산 문학을 서술함에 있어 보이는 특징적인 면모와 그러한 특징적인 면모가 갖는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도출하였다.

첫 번째, 북한 문학사에서 다산의 문학을 평가할 때, 인민적 시각을 갖고 다산의 문학을 평가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인민들의 삶과 고통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려내는지와 함께 현실 개혁의 방법론에서 있어서도 봉건사상의 관념론에서 벗어났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평가하였다. 두 번째, 주체사상 이후에 나온 북한 문학사에서는 문학사적 의의를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다산과 다산 작품의 한계도 지적하였다. 물론 한계로 지적된 부분이 갖는 문제점 또한 많지만 문학사 서술에 있어 작가와 작품에 대한 공과(功過)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서술 태도는 문학사 서술에 있어 기본 전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후반부 문학사로 오면서 민요적 형식에 주목하는 태도를 통해 문학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다. 문학이 형식과 내용이 결합된 언어 예술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내용의 사실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형식미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서술 태도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다산 문학 서술이 통일문학사 구성을 위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북한 문학사에서 다산 문학에 대한 서술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다산 문학에 접근하는 우회로처럼 보였지만, 반쪽짜리가 아닌 온전한 한국학을 논의하는 데 있어 다산 문학, 그리고 다산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야기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북한 문학사에 서술된 다산 문학의 의미와 통일문학사 서술에 있어 다산학의 역할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 김일성종합대학 편(임헌영 해설), 1982, 『조선문학사』 I, 도서출판 천지.
김하명, 1999, 『조선문학사』 6,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1977(『조선문학통사』 1, 이회문화사, 1996), 『조선문학사』 고대·중세 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정홍교·박종원, 1986(도서출판 진달래, 1988), 『조선문학개관』,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문학연구실편, 1959(화다, 1989), 『조선문학통사』 (상), 과학원출판사.

2. 남한 자료

- 김영민·설성경, 1998, 「통일문학사 서술을 위한 단계적인 방안 연구」, 『통일연구』 제2권 1호, 숭실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김영수, 1989, 「북한의 다산연구시각」, 『동아연구』 제17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김용규, 1994, 「북한의 정다산 연구에 대한 고찰」,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재용, 2001, 「북한문학사 검토와 서술방향」, 『한국문학사 어떻게 쓸 것인가』, 한길사.
김현양, 2010, 「북한의 ‘우리문학사’ 서술의 향방 -근대문학 이전의 문학사 서술을 대상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42호,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김형태, 2012, 「북한 문학사의 조선 후기 서술 향방과 변화」, 『민족문학사연구』 제49호,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다산학술문화재단, 2013,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사업백서』, 도서출판 사암.
민족문학사연구소 지음, 1991,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 창작과비평사.
오성삼, 2002, 『메타분석의 이론과 실제』, 건국대학교출판부.
유초하, 2000, 「다산학의 남북 비교: 근대지향 개혁사상과 신증세적 관념론의 사이 또는 겹침」, 『민족문화연구』 제33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유초하, 2001, 「북한 다산학의 중점이동 과정과 최종지침의 핵심 -봉건체제 혁파지향에서 자본주의적 요구의 반영으로-」, 『동양학』 제31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윤선자, 2004, 「1930년대의 국학운동과 다산 인식」, 『한국사상사학』 제23집, 한국사상사학회.
임형택, 2002, 「분단 반세기의 남북의 문학연구 반성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 비평사.
정일균, 2014, 「1950, 60년대 ‘근대화’와 다산 호출」, 나종석 외 지음, 『유학이 오늘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가』, 혜안.